

# “국민 생활 안정” vs “일회성 지원”

### 여야, 재난지원금 격렬 공방 속 초반 ‘기선잡기’

### 민주당, 2차 추경 드라이브...통합당 “매표 행위” 비판

여야는 4·15 총선을 15일 앞둔 지난 31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선거전 초반 기선제압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빠른 전달을 위한 ‘2차 추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 잘하는 여당론’을 밀고 나가자 미래통합당은 일회성 지원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진정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실정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정당 선거운동 대결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 이른바 ‘정부 지원론’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국난

극복위 실행회의에서 “선거운동보다 국민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국민에게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달되도록 선거 중에도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경기도 수원을 시작으로 제주(3일), 부산(6일), 광주(8일), 대전(10일)을 돌면서 선거 지원 활동에 나선다. 특히 1일에는 비례 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연석회의 형태로 공동 선거운동에 나선다. 민주당은 2일에는 시민당과 공동 출정식도 가질 예정이다.

통합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회성 문자 지원으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는데도 총선 표심을 고려해서 대책을 내었다는 것이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선거전략회의에서 “전후 사정을 살펴본 결과 명확해진 것은 명백히 총선을

겨냥한 매표 욕망에 의해 결정됐다”는 것이라며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1회성 지원 정책을 전형적 매표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만일 주겠다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도 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통합당과의 공동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선 기기를 하면서 열린민주당이 시민당 표를 일부 잠식하는 것을 막는 데 공을 들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 “민주당의 공식 후보자 심사 기준으로 따지면 단 한명도 후보로 못 간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지층이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 심판론으로 한 표를 호소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극심한 내용을 겪었던 민주당은 순화규 상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대표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다당제를 지켜줄 것을 읍소했다. /연합뉴스



재난안전대책회의도 ‘사회적거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당 선대위 출범...선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4·15 총선을 진두지휘한다고 국민의당이 지난 31일 밝혔다. 국민의당은 앞서 안 대표의 ‘정치적 멘토’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가 카드가 무산되면서 안 대표가 직접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선대위 명칭은 ‘언행일치’로 정했다.

선대위 부위원장은 권은희·이태규·구혁모·김경환 최고위원과 최병길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이 맡는다. 이태규 의원의 경우 선거대책본부장 겸 종합상황실장도 함께 맡는다.

또한 지난 2018년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한 최단비 원광대 로스쿨 교수, 장지훈 부대변인이 선대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어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안 대표는 선대위 출범과 함께 양당의 비례정당을 비판하고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4월 1일부터 400km 국토대중주를 시작한다. 전남 여수에서 출발해 서울을 향해 매일 30km를 도보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사실상 전국 각지를 찾는 선거 유세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또한 서울·경기·인천·호남·영남·충청 등 6개 권역별 선대위도 구성했다. /연합뉴스

## 재외국민 투표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절반 투표 못 해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 즉 재외투표가 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4월 1~6일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이번 재외투표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전체의 53.2%에 해당하는 9만1459명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대해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총선 라운지

### 전정배 “호남 대통령은 호남인들 염원”

민생당 전정배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후보 측은 지난 31일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양향자 민주당 후보가 ‘호남 키움 대통령 만들겠다’는 말에 부끄럽다는 시민들도 있다”고 발언한 것은 스스로의 입장 표명은 교묘히 회피하고 숨긴 채 시민발언으로 둔갑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양향자 후보도 ‘호남후보 불가론’의 신봉자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이라며, “오랜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호남 대통령을 염원해 온 우리 광주와 호남인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소병철 “문 정부·검찰개혁 지킴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지난 31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국정운영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소 후보는 이날 스스로를 가리켜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검찰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라고 설명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면 문재인 정부와 함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제대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순천시 해룡면 분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는 마당에, 해룡면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김형호 기자 khh@



### 박지원 “긴급재난금 1인 100만원 지급해야”

민생당 박지원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31일 “정부는 코로나 19 긴급재난기 본소득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에게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대통령 결정을 환영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IMF 외환위기 극복의 전 과정을 함께 해냈다. 제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길고 암울한 시대가 시작됐다”며 “더욱 확실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



### 신정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환영”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31일 “문재인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신 후보는 “현재의 경제 위기는 투자할 돈이 부족해서 발생한 경제문제라기보다 소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로 진단하고 내수소비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안주용, 나주·화순 후보자 방송토론 제안

민중당 안주용 나주·화순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31일 “나주·화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후보에게 4월 4일 선거방송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나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나주화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가 4월 4일 광주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며 “그러나 관련 법규에 의하면, 현재 신 후보만이 토론회 참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관련 법규는 “후보자가 동의하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김승남 “재경고흥군향우회 지지 천군만마”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후보 측은 지난 31일 “재경고흥군향우회 임원진들이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격려차 김승남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응원해주셨다”고 소개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면서 “김 후보가 향우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4·15 총선에서 당선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다”고 전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재경고흥군향우회 이호 회장 등 15명이 선거사무소를 격려차 방문했으며,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김승남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형호 기자 khh@



### 황주홍 “도덕·개혁성 갖춘 21대 후보자 선정”

민생당 황주홍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후보 측은 지난 31일 “황주홍 후보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제21대 총선 후보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황 후보 측은 따르면 호남유권자연합은 지난 3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호남 지역 총선 출마자 중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총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황 후보 측은 “호남유권자연합은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토론을 거쳐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후보자로 황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손술, 대학 등록금 무료 등 청년공약 발표

민중당 손술 비례대표(3번)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31일 광주시의회에서 대학 등록금·기숙사비 무료 등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영광 출신인 손 후보는 “미래세대 청년들이 최소한 인생의 출발 만큼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주택자 청년들은 월급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다”며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청년무상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광주 전남 전북

#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